

“환경운동 말보다 한번의 실천을”

신행현장

대불청 부산지구 환경신행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상류부터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곧 청정한 국토라는 달처럼 우리 청년불자들의 진지한 신심과 구도열로 청정한 낙동강을 가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가 6차례에 걸친 ‘낙동강 원류 따라 구도 도보순례’를 마치고 17일 중간보고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년회원들이 이같이 다짐했다. 청년불자들이 침체된 청년불교를 활성화하고 청년불교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낙동강 원류 따라 구도 도보순례’가 여섯 6개월을 맞은 것이다.

낙동강도보순례단(단장 류상영) 회원들은 이날 중간 점검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다졌다.

그동안 매월 첫째주 일요일이면 30~40명의 청년불자들이 모여 낙동강을 따라 구도대회를 이루었다. 낙동강의 원류인 태백산 황지에서 시작한 이 발걸음은 한번에 30km씩을 더하며 중류인 경천대에 닿았다. 낙동강도보순례단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숲한 땀방울을 흘렸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소중함을 절감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곳곳에서 폐수와 생활오수가 흘러들고 쓰레기로 덮여있는 낙동강의 모습앞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오허려 그 상처난 낙동강이 대원들을 일으켜 세웠다.

“낙동강을 따라 걸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황인렬 도보순례단 총괄팀장은 “과과된

‘낙동강 원류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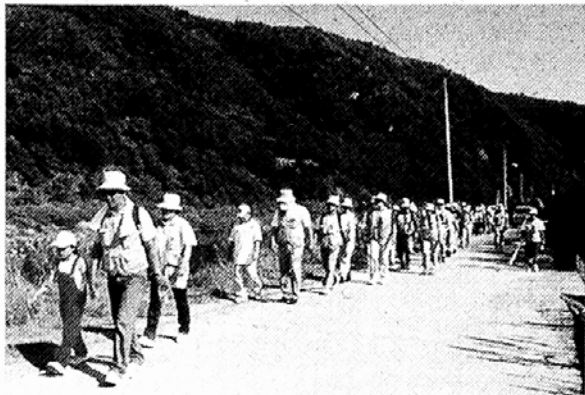
매월 첫째 일요일

구도 도보 순례

내년 초파일 회향

자연환경의 심각성에 놀랐고 청년 불자들이 더욱 전문가적 견해를 갖추어 환경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한 임장식 대원은 “6차까지 경과하면서 아이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운동이 말, 마음보다는 한번의 실천이 더욱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일 대불청 부산지구 낙동강 도보순례단원들이 낙동강 중류인 경천대를 걸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사진 자료를 챙겨온 정영철 대원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아주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도보순례기간동안 이들이 채택한 환경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 청년불자들의 생활태도도 전과 비교해 많이 변했다. ‘물을 아끼겠다’ ‘음식물을 버리지 않겠다’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겠다’ ‘환경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선언문의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불자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 낙동강도보순례는 청년회 조직 재정비, 불교 운동 활성화, 포교라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도보 구간 곳곳에서 오염의 현장을 발견하면 해당관

청에 항의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한 낙동강도보순례단은 앞으로 남겨진 14~16차 정도의 순례를 이어가면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전야제에 맞추어 회향하게 되는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은 회향이후에도 도보구간에서 발견된 심각한 오염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주제별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도보순례단이 낙동강을 도보순례하며 불교적 환경관을 세상에 바로 펴고, 그래서 청정한 국토를 가꾸는 것은 이제 청년회원들이 꼭 해야 할 신행이 되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중생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많은 업을 쌓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며, 행함이 원만한 참깨침의 생명체 실현은 부처님과 조사의 한결같은 혜명이고,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근본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체 중생들은 무지 무명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고 오직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많은 업과 집착의 관념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운명이란 굴레를 지음으로써 한없는 생로병사 우리고뇌의 세계를 윤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공스님
삼각산 무량사 주지

이를 불쌍히 여기신 부처님께서는 “깨침이 곧 부처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하시며 “중생들도 다 불성을 갖추고 있거늘 어찌하여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있으며 또 죽이고 죽임을 받으며 속이고 속임을 받는 등 좋지 않은 일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있을때 그 성취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삼보에 귀의하고 사후세원을 세우며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육바라미 수행을 지켜나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내를 갖고 맹렬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에는 우선 간경 수행이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을 열심히 읽고 관상하여 그 뜻을 알아 자기의 지혜로 활용하는 수행입니다.

경전·조사어록 마음쏟아 읽어야 자기 지혜로 활용

가?”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또 최후 설법을 통해 “각자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믿으라.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되 무성한 것임을 생각하여 집착하지 마라. 변변치 않은 일에 마음을 쓰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수도의 즐거움으로써 낙을 삼아 깨달음의 꽃을 피우고 도의 열매를 취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혜명대로 부처님의 큰 지혜에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수행정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 깨침을 향한 수행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근기가 약한 하근기 중생은 우선 중근기로, 중근기 중생은 상근기 성품으로 바꾸어 나가는 등 각각의 근기에 맞는 수행정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근기 중근기 중생이 곧바로 최상승 수행법인 참선수행에 들

불사 수행은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불법심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조상을 위한 천도, 이웃을 향한 자비심과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상생의 인연을 짓는 수행입니다.

염불 수행도 있습니다. 화두를 놓고 염불하면 더욱 깨침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염불하면, 염불하는 그 부처님의 원력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효과적입니다.

참선은 만법의 근본을 밝혀내는 최상승의 수행법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참성품과 같은 불성을 보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법(止觀법) 조사선(간화선법) 등이 있는데,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써 보리도를 증오(證悟)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오도를 끊임없이 보임으로써 확립대오하여 부처님과 같이 중생교화에 나서서 정토 구원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부처님의 몸이요, 산과 산, 물과 물은 그대로 조사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이 마음이 안긴 우리들은 바로 미래세에 모두다 자각, 각타, 원만할 부처입니다.

생활속의 불교

발 걸지 않겠거든 먹지도 말라

‘일일부작 일일복식(一日不作一日不食)’은 『백장청규(百丈淸規)』로 유명한 화해(懷海) 선사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하루 일하지 않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뜻이다. 서늘퍼런 칼날 같은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나섰다가 마침 농사 준비를 하던 한 바라문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나는 해마다 밭 갈고 씨 뿌려 내가 먹을 양식을 마련하고 있소. 당신도 스스로 씨 뿌려 먹을 양식을 구함이 옳지 않겠소?”

부처님께서 일하지 않았으면 먹지도 말라고 중주먹을 들이던 셈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바라문아, 나도 밭 갈고 씨 뿌려 먹을 것을 얻고 있노라” 하였다.

〈아함경〉은 이를 좀더 자세히 전한다. “민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을 가는 모습, 나는 신·구 의로 짓는 나날이 악업을 제거하니, 그것은 내가 밭에서 김 매는 것. (중략) 나는 이렇게 밭 갈고 이렇게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두노라.”

부처님께서서는 마음의 밭을 가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바라문의 밭은 땅이었지만 부처님의 밭은 중생의 마음이었음이다.

중생은 나날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더욱이 생각은 할나에도 수백 번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신구의 삼업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쌓이고 쌓인다. 그중에 또 악업은 얼마라? 불자라면 모름지기 마음의 일일부작 일일복식을 실천해야 한다. 일상의 근로에서도 방일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의 밭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단 하루, 아니 잠시의 방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 —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는 일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불을 얻고자 할 때 나무에 불이 붙기도 전에 문지르기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할 일이다.

마음 공부는 무슨 학문을 연마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 공부는 한시도 끊어질 수 없고 끊어져서도 안되는 공부다. 풀려 놓으면 활나간에도 수많은 업을 짓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마음 밭을 갈아 감로의 열매를 따자.

龍眼

덕승총림 수덕사

2001학년도 승가대학 학인 모집

덕승총림 수덕사 승가대학에서는 200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모집인원
· 사미과	○○명
· 사집과 (편입)	○명
· 사교과 (편입)	○명

제출서류	수량
(1) 입학원서 (본사소정양식)	1부
(2) 신상명세서 (본사소정양식)	1부
(3)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4) 사진 3×4 (오조착용)	1부
(5) 은사스님 추천서	1부
(6) 수료증 (편입생)	1부
(7) 건강진단서	1부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기타 학업에 필요한 것

특전 : ① 교재, 의료 등 강원생 전원에게 본대학에서 책임 짐
② 학년별 우수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승가대학 수덕사 승가대학 ☎ (041)337-5973 종무소 ☎ (041)337-6565
불기 2545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7교구 본사 수덕사 승가대학장

불교의식 (범음·범패) 수련생모집

바라작법 특별반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어렵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 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지도과정 : (1)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 ① 송주편 (도량서·조석종성 등)
 - ② 예경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 ③ 헌공편 (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칭 등)
 - ④ 재의식편 (천도제·49제·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식편 (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1년 10월 9일까지(현재 접수 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특징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범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바라작법반 모집

- 49재, 천도제 등 범회시 바라 작법 및 북·태징·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지도합니다.
- 수련기간 : 6개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4시~6시 (2시간)
- 개강일시 :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 학습내용 : 상주권공, 대량관공, 신중작법, 지정칭, 관음시식, 다비식 등(범주·바라지 교육전문) ·작법 :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북정계, 다게작법(나비춤) 등 ·사물 : 북, 태징, 사물교육포함
- 접수방법 : 불교의식 속성반과 동일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전화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http://pubsa.buddhism.org